

목회데이터연구소·목회사회학연구소·문화선교연구원
공동주최 문화포럼

〈2021 문화선교트렌드〉

- 한국 사회문화 변동과 한국교회의 과제 -

【 진행 】

발제1	“2021 한국 사회문화 전망과 교회의 과제” 백광훈 문화선교연구원 원장
발제2	“2021 한국 교계 및 목회 전망과 과제” 조성돈 목회사회학연구소장/실천신대 교수
발제3	“2021 한국 청년문화 및 기독교문화 전망과 교회의 과제” 김지혜 문화선교연구원 책임연구원
발제4	“통계로 미리 보는 2021” 지용근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종합토론	발제자, 온라인 참여자

2021.01.07.(목) 오후 2:00 온라인 생중계

유튜브 채널



문선연TV

【 목차 】

목차 ... 1

발제1

2021 한국 사회문화 전망과 교회의 과제 / 백광훈 ... 2

발제2

2021 한국 교계 및 목회 전망과 과제 / 조성돈 ... 5

발제3

2021 한국 청년문화 및 기독교문화 전망과 교회의 과제 / 김지혜 ... 8

발제4

통계로 미리 보는 2021 / 지용근 ... 12

종합토론 ... 17

참고자료

2020 문화선교트렌드 ... 18

【 발제1 】
2021 한국 사회문화 전망과 과제

백광훈 문화선교연구원장
장로회신학대학교 초빙교수·기독교와문화

2021년은 사회문화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사회의 본격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백신 접종으로 인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완전 종식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코로나19가 가져온 파생 현상은 우리 사회 문화 분야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지금 우리가 맞이한 현실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디지털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이 특히 그러하다. 방향의 변화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해 미래로의 진입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진 것이라 할 것이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의 가속도 속에서 대중들은 삶의 방식을 찾아가고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며 공동체의 미래를 모색하면서 2021년을 만들어갈 것이다.

뉴노멀, 온라인 중심 인간을 가속화하다.

단연코, 2021년 사회문화 변화를 규정할 키워드는 온라인 중심의 비대면 인간관계의 확장이다. 비대면 상황이 일상이 되는 뉴노멀이 본격화된 2020년의 현상들은 2021년에도 여전히 사회문화의 주된 변화의 양상이 될 것이며 특히 디지털 중심의 생활세계를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코로나19는 온라인 중심의 비대면 문화를 급속도로 가속화시켰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는 이른바 ‘집콕’ 생활의 패턴이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집에서 경제생활을 향유하는 구독 경제의 활성화와도 연결되어 있다.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의 약진은 올해도 계속 이어질 것이며, 개인의 취향과 개인화된 시간에 맞추어 다양한 상품들이 집이라는 시공간에서 소비될 것이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2021년도 트렌드 분석의 공통적인 예측 중 하나는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고 한 점이다.¹⁾ 집이 생활의 중심 플랫폼이 되면서 동시에 집에서 가까운 지역이 주목을 받고 지역 중심의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온라인 쇼핑을 통해 원거리 구매도 활성화되겠지만, ‘당근 마켓’처럼 가까운 곳에서 소비와 중고거래를 하는 지역 커뮤니티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도 각광을 받을 것이다.

디지털 환경의 발달, 52시간 근무제도가 본격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안전문제로 재택근무와 같은 형태의 근무 제도를 채택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²⁾ 재택근무에선 효율성과 실제 성과가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된다. 근무환경과 소통환경의 디지털 전환 속에선 유연성과 포용력, 그리고 명확성을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의 리더십이 더욱 각광받게 된다.³⁾ 이는 기존의 카리스마적인 일방통행식 소통 구조의 약화를 가져오며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인 수평적이고 상호적인 방식이 소통의 주요 방식이 되어감을 의미하기도 한다.

온라인 중심의 문화는 한편으로 대면 모임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하고 면대면 경험의 만족도를 요청한다. 온라인 문화는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만남에 대한 욕구를 증대시키고 관계의 질과 경험의 가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자발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 모임은 급격

1) 김난도 외 지음 <트렌드 코리아 2021>(서울: 미래의 창), 최인수 외 지음 <트렌드 모니터 2021>(서울: 시크릿 하우스).

2) “팬션에 적응하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동아일보, 2021.01.06.

3) <트렌드 모니터 2021>, 180.

히 그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관계의 양극화가 이루어지면서 온라인 관계의 확장고 함께 높은 수준의 오프라인 컨택트 경험의 만족도를 요청할 것이며, 온라인 컨택트와 오프라인 컨택트의 혼합 형태인 미들택트의 양상들도 또한 발전하게 될 것이다.⁴⁾

한편 온라인 중심의 소통에서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 플랫폼은 더욱 그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자기중심적 사고의 강화라는 문제를 양산하게 될 것이다. 동영상 기반 미디어의 소비시간이 더욱 확대되면서 그와 같은 미디어가 일상의 미디어 플랫폼으로 소비될 것이다. 동시에 가짜 뉴스와 같은 부작용이 이미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SNS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중심의 소통이 자기 확증적인 양극적 사고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이 지닌 알고리즘은 자기 확신을 더욱 강화시키면서 갈등 주체 간의 소통 장애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가져오는 사회적 소통과 갈등의 해소, 통합의 문제는 우리 공동체의 주요한 현안이 될 것이다.

교회 공동체의 과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한국교회는 이러한 온라인 중심의 사회변동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온라인이라는 정해진 미래 속에서 디지털 소통 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오프라인 만남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교회공동체는 교회가 자리한 지역 속에서 만족할만한 예배, 교육, 나눔과 섬김, 영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온라인이 가져온 새로운 리더십의 부상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동시에 아 이러니하게도 유튜브와 SNS가 보여주는 부족주의적인 폐쇄성 속에서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소통의 방정식을 찾아 나서야 할 것이다.

공정성, 더 좋은 공동체를 위한 전제조건

2021년은 공정성 이슈와 이에 따른 좋은 공동체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길을 모색할 것이다. 공정성 담론은 최근 몇 년간 한국사회를 이끌어온 주요 담론이라 할 수 있다. 2021년 이루어질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부터 시작하여 방역당국의 행정조치의 형평성 문제, 재난 지원금의 배정 문제 등 생명과 생존에 관련한 공정성 담론은 뜨거운 이슈가 될 것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문화의 확산에 따라 로봇이나 디지털 시스템들이 상당 부분의 서비스 영역을 대체하면서 일자리 감소가 가속화될 수 있다.⁵⁾ 이는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할 것이다. 디지털 격차의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양극화의 문제들 역시 공론화될 것이며 디지털 격차를 보완할 수 있는 ‘기본소득제’ 같은 이슈들이 정치적 어젠다로 본격 등장할 것이다. 한국사회는 좋은 공동체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를 만들어가는 과제를 모색하게 될 것이다. 이념, 세대,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함께 살아가는 좋은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공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바람직한 사회형성을 위해 교회가 던져야 할 메시지와 실천은 무엇인지, 구성원 간의 격차를 줄이는 해법과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구조 형성을 위해 교회 공동체의 공적 역할을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요청된다.

가속화되는 탈종교화, 교회의 과제는?

이러한 급변하는 사회문화의 변화 속에서 교회 공동체는 소통을 넘어 사회변화를 위한 역할에 신실하게 참여하고 있는가, 라는 물음이 제기된다. 유감스럽게도 교회를 비롯하여 종교 공동체에 대해 사회가 가지는 기대와 관심은 우려할만한 상황이다. 특히 2021년은 이른바 ‘탈종교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방역과 관련한 교회의 이미지 하

4) <트렌드 코리아 2021>

5) 조선일보, '코로나 시대의 딜레마'...언택트 확산에 일자리 감소 가속화 우려, 2020.11.3.

락은 탈종교화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와 교회 모임과의 상관관계는 더욱 면밀하게 논의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럼에도 대중들에게 코로나19 확산과 교회가 연계되어 있고 이는 개신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형성에 상당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⁶⁾ 이러한 이미지 악화는 기존의 탈종교와 현상과 맞물리면서 향후 교회의 선교사역에 적지 않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2021년 한국교회가 교회 공동체의 내부 동력 회복은 물론, 종교로서의 대사회적 이미지 쇄신과 역할 증대, 선교적 역량 강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의미한다.

종교의 본연적 기능은 무엇인가. 코로나19 이후 '코로나 블루'라 일컬어질 정도로 사회적 우울감과 분노가 만연하여 있고 이에 대한 종교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사회가 불안하면서, 소유와 부의 획득을 통해 스스로 안전을 담보하고자 하는 물질주의적 성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교회는 2021년을 회복과 갱신의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 이것은 종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가능하다. 코로나19 시대, 안전한 교회가 되는 것은 교회의 기본 값이 되었다. 오랫동안 구조화되었고 코로나19 이후 강화된 경제 양극화와 이로 인한 빈곤층이 양산되고, 사회적 갈등이 극대화되는 상황에서 교회는 사회적 주체가 지닐 수밖에 없는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을 넘어서는 초월적 가치와 실천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사회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공동체가 나아갈 통합의 지향점을 제시하면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대안적 공동체임을 대사회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탈종교화의 위기 속에서 교회가 지향해야 할 이 시대의 선교적 과제가 될 것이다.

6) 연합뉴스, "천주교·불교인보다 개신교인 향한 부정 이미지 강해", 2020.08.29.

【 발제2 】

2021 한국 교계 및 목회 전망과 과제

조성돈 목회사회학연구소장·실천신대 교수

아직 무엇이 무너졌는지 모른다. 아직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1년 전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다. 끝을 기다리며 버티기에는 이미 많이 늦었다. 이제 새롭게 지어나가야 한다. 성도들과의 관계도, 건물도,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교회도 말이다.

복면성도

설교 강단에서 마스크를 쓴 성도들을 마주한다는 것은 당황스러운 일이다. 반가운 얼굴을 볼 수 없고, 누구인지 분간도 안 간다. 그러나 가장 당황스러운 일은 그들의 표정을 읽을 수 없다는 점이다. 가려진 얼굴 때문에 그들도 표정을 드러내지 않고, 앞에 선 목회자도 그들의 표정을 알 수가 없다. 마스크 한 장으로 가려져 있지만 그런 물리적 의미만은 아니다.

요즘 성도들을 만날 수 없으니 목회가 오리무중이다. 현재 성도들이 어떤 상태인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무엇보다 현재 비대면, 온라인 등으로 인해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지, 아니 정확히는 온라인으로라도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물론 유튜브 방송에서 조회수로 가늠은 해보지만 누가 왔다 갔는지, 그들이 모두 우리 성도인지 알 수가 없다.

성도들이 이전처럼 교회에 매여 있지 못한다.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교회로 오던 발걸음을 이제 볼 수가 없다. 주일이면 그렇게 북적대던 교회당은 주일이 되어도 텅 비어 있다. 마당을 뛰어다니던 아이들의 모습도 볼 수가 없고,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던 성도들도 볼 수가 없다.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이 정지되고 단지 주일예배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시간이 잠시일 줄 알았는데 거의 1년이 되었다. 더군다나 앞으로 얼마나 이렇게 갈지 알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그동안 교회는 현재의 상황을 일시적인 것으로 인식했다. 그래서 이때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지만 지난 1년에, 앞으로의 시간을 생각하면 교인들은 이런 상황에 익숙해졌고, 앞으로도 익숙해질 것이다. 얼마 전 학교(실천신학대학원)에서 해프닝이 있었다. 그동안 온라인 수업으로만 진행을 해오던 게 미안해서 학기의 마지막 2주라도 모이자고 교수회의에서 논의했다.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을 물었는데 90% 이상의 학생들이 모임 필요가 없다고, 현재의 수업에 만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결국 학생들을 위해 모이기로 했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오히려 교수들이 현실을 자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인들 입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시 주일 오전을 그렇게 분주하게 보낼 마음도, 교회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느라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할 마음도 사라졌다. 특히 교회에 자신을 그렇게 헌신할 자신이 없다.

이제 복면성도들에게 맞는 목회를 해야 한다. 일정의 거리를 두고 떨어진 듯, 떨어지지 않은 목회자와 성도의 거리, 그리고 성도들 사이의 거리가 유지되는 교회가 가능하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허락하는 대로 단기적 프로그램으로 다가가야 한다. 또 중요한 점은 이제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온라인으로라도 만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결국 교회는 컨택트, 언택트, 미들택트의 다양한 가능성을 가져야 한다.

공간의 딜레마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면서 목사들의 소감이 이어졌다. 대부분 허망하다는 의견이었다. 설교단에 올랐는데 교회당에 아무도 없다. 빈 공간을 향해서 설교를 한다는 것은 너무 충격이었다. 마치 오래된 악몽 같다. 특히 큰 교회당을 지어놓은 곳에서 들린 이야기이다. 아마 교회당이 크기에 그 충격은 더 컸을 것이다. 어쩌면 '내가 뭐한다고 이렇게 크게 지었을까', 또는 '그렇게 고생해서 지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허망함이었을 것이다.

온라인 예배가 되니 교회당이 의미 없다. 영상에 보이는 건 설교단 하나뿐이다. 그게 그렇게 큰 교회당이던 스튜디오이건 구별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코로나19 시대에는 교회당이 의미가 없다고 나 자신도 이야기했다. 그래서 이제 건물이 필요 없게 되었다고 사석에서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많은 교회가 교회 문을 굳게 닫고, 출입 명부에 열 체크, 교인확인, QR체크 등 이중삼중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람이 안 찾아오니 이제 빈 건물이 급하게 노화되고 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얼마 전 19년 동안 복지관 건물을 주일에 빌려서 목회를 해온 목회자를 만났다. 그의 이야기가 올해 그곳에서 쫓겨났다고 한다. 코로나19 시대가 되니 공공기관들이 건물을 안 빌려준다는 말이다. 이미 학교를 빌려 쓰고 있던 교회들이 여럿 쫓겨났다. 한 교회 이야기를 들으니 학교 강당을 빌려 쓰며 학교 안에 사무실을 두었는데 학부모들이 쫓아와서 항의하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쫓겨났단다. 심지어 컴퓨터를 비롯한 사무기구나 서류들도 챙겨 나오지를 못해서, 한 밤에 들어가 하나씩 챙겨 나오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즉 이제는 자기 건물이 없으면 모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건물의 딜레마'이다. 건물이 있는 것도 의미가 없고, 건물이 없으면 이제 모임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지금은 그래도 모임이 금지되지는 않았다. 단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좌석의 20-30% 정도 앉을 수 있다. 모임이 금지되었던 때와 비교해 보면 나아진 형편이지만 상황이 여유롭지는 않다. 얼마 전 한 대형교회 목사와 만난 적이 있는데 그가 하는 말이 30%만 모이게 되니 너무 힘들다는 것이다. 비록 사람들이 전에 비하면 적게 오지만 아무래도 하루에 4번 드리던 예배를 이제는 그 횟수를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성도들이 심리적으로 사람이 모이는 예배는 피하게 되니 그들이 모임 수 있도록 횟수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면 굳이 한 목사가 똑같은 설교를 하고, 동일한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청년부 예배를 분리해서 색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다양한 예배를 디자인해 볼 기회이다. 그리고 주일의 개념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꼭 그렇게 일요일 하루에 모든 예배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을까. 토요일이나 금요일에도 주일로 거룩하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날로 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그리고 예배당의 공간도 새롭게 디자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큰 본당이 의미가 없어졌다면 이제 온라인 시대에 맞게 다양한 공간을 마련해 보는 것이다. 코인 노래방과 같은 시설로 해서 한 사람씩 들어가서 온라인 심방도 하고, 성경공부도 인도하고, 소모임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요즘 목사들이 성도들과 직접 대면할 수 없으니 주 사역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다. 혼자서 노트북 하나 놓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다양하게 두며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다. 그리고 이런 공간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것도 염두에 두면 좋겠다. 회사 업무를 보는 사람이나 수업을 듣는 학생, 유튜브를 보거나 만드는 사람들에게 공간을 허락해 준다면 큰 호응을 얻을 것이다. 특히 온라인 공부방을 마련해 주면 일하는 엄마들에게 큰 환호를 받을 것이다.

공동체 리빌딩

온라인 상황이 오니 공동체에 대한 질문이 나온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흩어진 성도들이 야속하다. 그동안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했던 그 공동체는 어떤 의미였는지를 묻게 된다. 정확히 말하면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맞닿아 있다.

요즘 목사들이 모이면 얼마나 모이는지를 묻는 것이 일상이다. 원래 모이던 숫자에 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가 모이는지 서로 점검해 본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목회 스타일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어르신들이 교회를 나온다. 그동안 공동체라고 할 때 그려보았던 모습과는 조금 다른 형태이다.

여기서 문제는 어디까지 우리 성도일까 하는 질문이다. 그 전에는 주일에 교회당에 나오는 사람이 우리 성도였다. 그런데 주일에 모두 모일 수가 없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우리 성도로 보아야 한다. 조회수로 확인되는 그들 역시 우리 성도이다. 그런데 그마저도 확인이 안 되는 성도들이 있다. 이들 역시 우리 성도로 볼 수 있을까? 마치 예수님에게 던졌던 질문 같다. ‘누가 강도 만나 자의 이웃입니까?’ 아니 ‘누가 우리 교회 성도입니까?’를 물어야 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유튜브를 통해 유명해진 목사들이 나타났다. 모이는 예배와 상관없이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설교와 콘텐츠들이 있다. 소위 이야기하는 유튜브 스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들이 열어놓은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어간다. 김동호 목사의 채널은 16만 명, ‘현이의 일상’은 13만 명, 한성교회 10.9만 명, 제자광성교회 10만 명 등이 이를 증명한다. 믿는 이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이들은 교회로 보아야 할까?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성도의 교제는 공동체로 볼 수 없을까? 아마 이 가운데는 자기가 속한 교회와 온라인상에서 가입된 교회가 다르고, 심지어 온라인상에서 받는 영향이 더 큰 성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성도는 어느 공동체에 속한 것일까?

앞으로 공동체에 대해 다양한 질문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공동체의 개념을 새롭게 하고, 공동체를 리빌딩해야 할 사명이 생겼다.

【 발제3 】

2021 한국 청년문화 및 기독교 문화 전망과 교회의 과제

김지혜 문화선교연구원 책임연구원

지난해, 문화선교연구원이 발표한 <2020 문화선교트렌드>⁷⁾ 중 한국 청년문화 및 기독교문화의 전망과 과제에서 필자는 “선을 넘는 사람들,” “신앙 공동체, ‘혼자 사회’를 만나다”, “뉴미디어 시대, 기독교문화 꽃필 무렵”을 제시했다. 비록 코로나19에 모든 담론이 함몰되어 버린 일상 중에도 각 영역 간의 융·복합적 콜라보레이션은 적극적으로 시도되었으며, 다양한 기독교문화 콘텐츠들의 창작과 소비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진 한 해였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사역으로 전환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온·오프라인의 선을 넘고, 교회의 각 부서들이 독립적으로 사역하기보다 협력하여 신앙 콘텐츠와 예배를 준비하는 경우도 많았다. 개교회나 개별 목회자, 심지어 성도들까지 신앙과 연계된 영상 콘텐츠 참여의 사례들이 늘어났다. 물론 어려움도 많았다.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에 익숙해지는 것도 쉽지 않았고, 외부 플랫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상치 않게 찾아오는 오류나 문제들도 있었다. 하지만 성도들은 일상과 주일, 삶과 예배의 경계가 희미해지며 일상 신앙의 중요성,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소중함을 깨달았으며, 주일에 교회에서 연령대나 봉사 여부에 따라 흩어져있던 가족들이 모이는 긍정적인 경험을 하기도 했다. 코로나19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규모의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조직 구조의 필요성이다. 한편, 1인 가구가 한 해 만에 57만이 증가해 어느덧 900만(39.2%)에 이르렀는데, 교회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예배 등 기존 사역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지만 사회가 점점 더 개인화, 파편화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교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

2021년은 코로나19의 영향 아래, 비대면 상황이 가속화함과 동시에 일상을 회복하려는 시도들이 증척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특히 물리적 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온라인 플랫폼과 디지털 환경의 발전이 급속도로 전개됨과 동시에 관계의 친밀성과 지역성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기존에 자기계발적 차원에서 나타났던 살롱 문화의 또 다른 버전으로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2020년 방역이 최우선 되면서 후순위로 밀려났던 경제적 취약함들을 극복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들, 혹은 공동선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대안운동 또한 부각될 것이다. 2021년은 코로나19 이후, 변화와 회복의 균형을 맞춰가며 비로소 신앙인들의 뉴노멀이 시작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진화하는 랜선 컬처, 사회적 관계의 진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이라면 꿈에서 단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 적이 있을 것이다.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던 지난해 2월, MBC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 영상이 큰 감동을 주며 회자되었다. 3년 전에 병마로 잃은 딸 나연이를 가상현실(VR) 이미지로 복원해 엄마 장지성 씨와의 만남을 시도한 것이다. 아이의 모습이 실제처럼 정교하지는 않으나 어머니에게는 그간의 그리움을 달래주기에 충분했다. 장장 8개월의 여정이 만들어낸 영화 같은 장면은 가상현실 기술이 실제 현실에서 인간의 삶에 어떤 영

7) 문화선교연구원·목회데이터연구소·목회사회학연구소, “2020 문화선교트렌드 자료집,” 2020.01.09. <https://www.cricum.com/53/?idx=191>

향을 미칠 수 있을지 대중들에게 다양한 가능성을 상상하게 했다.

2020년,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온라인 시대가 앞당겨졌다. 2021년에는 여기에 인공지능(AI) 기술이나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⁸⁾,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⁹⁾, 혼합현실(Mixed Reality, MR; VR+AR)¹⁰⁾ 기술 등과 결합되어 보다 진화된 디지털 환경이 앞으로 우리의 일상생활과 더욱 밀접해질 것으로 보인다.¹¹⁾ 얼마 전, 인공지능 스피커를 향해 “살려줘, 도와줘”라고 외친 80대 어르신 이 구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¹²⁾ 이미 MBN 뉴스에서는 김주하 앵커 대신 AI 앵커가 보도를 하거나 아바타 아이돌이 데뷔를 하기도 하고, 각종 산업에서 AR/VR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에게 새로운 소비경험을 제공하며,¹³⁾ AR 기반 아바타 SNS 서비스인 ‘제페토’나 AI 챗봇 ‘루다’는 신기술에 익숙한 Z세대에게 어필하며 핫한 놀이문화이자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이러한 경향이 비대면 무인화 기조와 맞물려 한층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 900만 시대, 개인주의 흐름과 모바일 콘텐츠 소비, 코로나19라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상황이 맞물리면서 사회적 관계 맺기의 양상이 Z세대를 중심으로 더욱 극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알고리즘 같이 인공지능에 기반한 초개인화 기술은 어느새 대중에게 친숙해졌다. 감각의 지평을 확장시키고, 인간의 제한된 능력과 3차원적 시공간의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의 진보에 경탄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두렵고 우려스럽기도 하다. 윤리적 논쟁이나 부작용에 대한 비판들이 촉발될 수 있는 지점이 존재한다.

교회는 이러한 가상과 현실이 혼재되고 중첩되어 가는 디지털 기술 환경 속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관계 맺을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숙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제껏 하나님과 세상(타인, 자연)과의 관계 맺기에 관심했다면, 영화 <그녀>에서 화두를 제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기계와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왔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 홀로는 존재할 수 없다는 ‘나와 너’의 상호 인격적인 사귀이 과연 도래할 인공지능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기술의 발전에 대한 대응은 각 교회가 처한 상황마다 다르다. 아마도 코로나19가 지난간 이후에, 전통적인 방식을 더욱 고수하는 교회들도 있을 것이고, 적극적으로 온라인 교회를 고려하는 사례들도 더욱 빈번히 출현할 것이다.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가상의 몸과 가상의 공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신학적, 실천적 성찰도 필요하고, 디지털 네이티브들을 비롯해서 오늘날 달라지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하며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공동체적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역시 매우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교회 내에서 연령대에 따라 디지털 격차가 생기는 것이야 필연적이지만, 교회와 교회, 교회와 세상 간의 디지털 격차 또한 점차 커질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그런데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 대한 이해나 소통의 노력도 없이 그저 교회로 오기만을 바란다면, 교회의 미래는 그리 밝

8) 컴퓨터가 만들어놓는 가상의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하며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술.
9) 모든 것이 가상세계인 가상현실(VR)과 달리 증강현실(AR)은 실제 현실세계에 3차원의 가상물체를 겹쳐 보이는 기술.
10) 현실과 가상을 결합해 실제 물질과 가상의 물질이 상호작용하면서 사용자가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는 기술.
11) AR/VR과 AI가 적용된 수준별 맞춤형 에듀테크나 얼마 전에는 치매위험 예측 정확도가 97%에 이르는 인공지능 모델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박기원, “인공지능으로 ‘치매 예측’ 97% 맞혀요!,” KBS, 2021.01.01.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85318&ref=A>
12) <https://www.segye.com/newsView/20201230512608>
13) 박세령·박수빈, “[대학생 리포트 ISSU 2020] ④집돌이와 박순이 ‘AR 활용 쇼핑법,’” IT조선, 2020.12.31.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31/2020123100483.html; 둘째 앤 가바나 부티끄는 실제 매장을 가상 경험할 수 있도록 버추얼 부티끄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파리나 마이애미, 상하이 매장에서 쇼핑하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다음의 링크를 통해 파리 버추얼 부티끄에 가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https://virtualboutique.dolcegabbana.com/virtual-tour/paris-faubourg-st-honore>. 유지연, “파리 VR 매장으로 떠나볼까... 안방에서 재고파악까지 ‘생생,’” 중앙일보, 2021.01.02.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66374?>

지 않다. 기술적 지원이 어려운 교회의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생각하면 좋겠다. 이들은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디지털적 관계에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적 고립에 취약한 세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물론 본질적으로 깊이 있는 예배 경험을 통한 뜨거운 하나님 만남과 진정성 어린 애정에 기반한 ‘인간적’인 공동체됨이 무엇보다도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테제는 오늘날 교회에게 점점 더 어려운 과제가 되는 듯하다. 하지만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방향임을 진화하는 랜선 켄치의 흐름 속에서 교회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잘 믿고 잘 사는 법

시대마다 구성원들에게 주요한 역사적 사건들이 있다. 10여 년 전, 한 설문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으로 IMF 사태(33.6%)를 가장 많이 꼽을 정도로 IMF 외환위기는 우리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¹⁴⁾ 효율적이고 유연화된 노동시장 구조로의 개편은 고용 불안과 극심한 빈부격차 등을 낳았고¹⁵⁾, 배금주의와 적자생존 등 신자유주의적 논리는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로 한 CF가 히트를 치거나 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베스트셀러였던 상황들은 당시의 분위기를 잘 드러내 준다. 코로나19가 확산되었던 2020년, 근로소득만으로는 한계를 느끼며 주식과 재테크 등 투자 열풍이 불고 부와 행운에 대한 사례 및 성찰을 담은 『더 해빙』이 2020년 베스트셀러 1위가 된 것¹⁶⁾과 어쩐지 겹쳐 보이는 모습이다. 생계유지나 자기계발을 위해 본업 외에 여러 부업을 한다는 ‘n잡러’도 늘고 있다.¹⁷⁾ 이제는 여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자기계발을 한다는 경우가 전체의 1/3 이상이며, 취미 또한 자기계발의 일환으로 한다는 경우가 대부분(68.4%)이라는 점은 청년 세대가 증폭되는 불안감을 상쇄시키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데 익숙해진 피로한 현실을 반증한다. 한때 행복 추구의 방식이 ‘올로’였으나, 이제 코로나19를 계기로 앞으로 행복한 삶에 대한 개념이 재정적 여유에서 오는 ‘안정’으로 재조정되고 그러한 삶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영위할 것인지 현실적인 판단을 한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확실성이 늘어난 사회에서 공격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를 통해 안정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어쩌면 모순된 행동처럼 보이기도 한다. 코로나19로 고용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¹⁸⁾ 빚을 내는 등 무리해서라도 부자 열풍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쩌면 청년들의 절박한 몸부림일지 모른다. 그런데 이 행렬에조차 끼지 못하는 청년들도 많다. 코로나19는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며 빈곤층을 더욱 거리로 내몰고 있다. 지난해 20대 비경제활동인구 비율과 함께 자살률이 치솟았던 것을 생각하면, 모두가 어려운 때이지만, 취약계층에 내몰리는 이 시대 청년들의 경제적, 심리적 현실에 대한 지원과 도움이 절실하다.

코로나19 이래 교회 안팎의 청년 공동체가 위협받고 있다. 여러 이유로 교회에 느슨하

14) 2위가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8.9%로 1위와 큰 격차를 보였다. 김민철·곽창렬, “[베이비붐 세대 4674명 조사] “IMF가 내 인생의 결정타”... 인생 황금기에 절반이 직장 바꿨다.” 조선일보, 2010.12.11.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2/11/2010121100071.html

15) 이세원, “국민 10명 중 8명 “IMF 외환위기로 소득격차 커지고 취업난 심화.” 연합뉴스, 2017.11.14.

<https://www.yna.co.kr/view/AKR20171114054600002>

16) 예스24, “예스24, 2020년 베스트셀러 분석 및 도서판매 동향 발표.” 예스24, 2020.12.03.

<http://ch.yes24.com/Article/View/43483>

17) 정혜경·최재영, “N잡러에서 빛투까지... 절박했던 2030.” sbs, 2020.12.31.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51143

18) 김강한, “일자리와 거리두기... 채용 늘린다는 기업은 23%뿐.” 조선일보, 2020.11.30.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0/11/30/BNQ2R43LTBC65ILKWQLUWFLJCU/>

게 참여했던 이들이 본격적으로 이른바 ‘가나안 신자’들이 될 것이라 보는 이들이 많다. 교회에 대한 실망도 있을 것이고, 신앙생활을 할 이유를 찾지 못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느라 삶이 버거운 이들도 있을 것이다. 교회는 경제적 위기에 놓여있는 청년들의 현재와 미래에 관심하며 격려하고 지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지키기가 힘겨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 믿는 것이 왜 중요한지 묻는 이들에게 응답해야 한다. 교회는 자본이 유일한 대안이요 추구해야 할 가치가 되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믿고 잘 사는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것이다.

나, 우리, 모두의 안전제일

코로나19는 여러 면에서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었다. 생존의 위기 가운데 개인 주의가 득세하는가 하면, 나와 타인의 안전이 상호적이라는 사회적 연결에 대해 새삼 일깨워주었다. 감염 확산을 위해 물리적 거리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관계를 맺거나 소비하는 일상의 일들을 처리함과 동시에 동네(local) 활동이 늘어나기 시작했다.¹⁹⁾ 자본의 탐욕으로 생태계의 교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비대면 상황이 빚어낸 플라스틱 대란을 마주하게 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교차 지점에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 있다.

지난해 서울 마포에 문을 연 ‘알맹상점’은 6개월 만에 매출 목표 1000%를 달성했다. 이곳은 세제나 화장품 등 무포장 제품만 판매하며,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플라스틱 프리(plastic free),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경기 일산, 광명 등지에서부터 세제를 리필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다. 천연 수세미나 친환경 생활용품들도 판다.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제로웨이스트 가게가 전국에 여러 곳 생기고, 아모레퍼시픽, 이마트, 올가 등 대기업에서도 리필 판매를 시작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사회적 신념이나 취향을 sns에서 표현하는 청년들의 가치소비 방식 역시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가치관이나 취향이 반영된 콘텐츠를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여기는 MZ세대들은 좋아하고 지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부적절하거나 불공정한 콘텐츠가 담기는 경우 가차 없이 보이콧을 하는 태도도 확산한다. 온라인 활동이 늘어난 만큼 sns 챌린지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비단 온라인에서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이러한 연대와 모임들이 많이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안전한 삶을 사는 것이 너무도 어려운 시절이다. 올해는 자연을 포함해 모든 생명에 대한 안전이 강조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의 생명이 타인과 자연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것을 코로나19로 뼈아프게 깨달았다. 2021년에는 이러한 사회적 가치에 동의하고 참여하는 움직임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측된다. 더욱이 친환경 에너지 등 각종 그린 산업이 각광받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 이슈는 앞으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생명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는 더욱이 생명 모두가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하고, 또한 안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2021년 새해를 열며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은 sns 챌린지와 방송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공분을 얻고 있다. 코로나19는 사람들을 집안에 가두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생명의 존엄과 연대의 가치를 강력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작은 날개 짓이 태풍을 불러일으키는 ‘나비효과’를 기대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움직임들이 큰 변화를 일으키는 2021년이 되기를 바라본다.

19) 박동휘, “소비후 퇴근→퇴근후 소비... ‘동네 경제’가 뜬다.” 한국경제, 2020.09.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90732461>

【 발제4 】
통계로 미리 보는 2021

지용근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코로나19의 한국교회 영향도

**교회 출석자 중, 코로나19 이후
 '아예 주일예배 드리지 않는 개신교인' 증가세!**

[그림] 지난 주일예배 드린 형태(교회출석자)



○ 지난 주일예배 안드린 자 특징

- 40대 이하 젊은층
- 직분 없는 성도
- 신앙이 낮은 기독교 입문층

* 출처 : 한목렘, '코로나 19로 인한 한국 교회 영향도 조사', 2020.04(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대상 온라인 조사, 2020.04.02)
 ** 출처 : 기사연, '한국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 조사'(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대상 온라인 조사, 2020.07.19)

3

**'주일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는 인식,
 3개월 사이 크게 낮아져!**

[그림] 주일성수에 대한 의견(전체 개신교인) (%)



[그림] 주일성수에 대한 의견(중직자, 7월 조사) (%)



* 출처 : 한목렘, '코로나 19로 인한 한국 교회 영향도 조사', 2020.04(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대상 온라인 조사, 2020.03.29)
 ** 출처 : 기사연, '한국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 조사'(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대상 온라인 조사, 2020.07.19)

4

개신교인, 코로나 종식후 교회 예배 변화 예상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것” 41%

[그림] 코로나19로 인한 예배의 변화 예상(개신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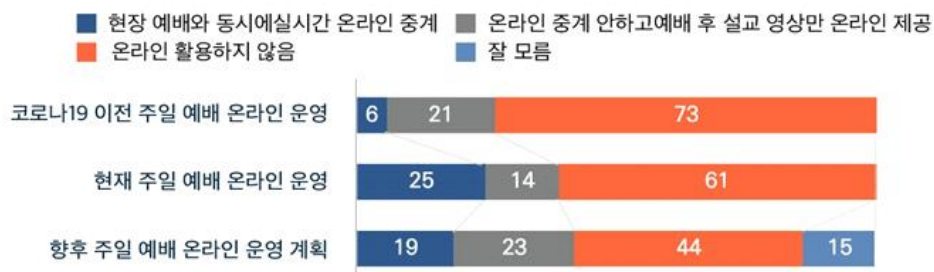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예장통합교단 코로나 19의 종교 영향도 인식조사와 뉴노멀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미래사회/종교 인식 및 유튜브 사용 실태조사, 2020.11.03.(전국 만19세 이상 일반국민1000명, 온라인조사 20200813-20)

5

그러나, 절 반의 목회자, 코로나 이후 온라인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

[그림] 주일예배 시 온라인 운영 여부(예장통합 교단 목회자) (%)



* 출처 : 예장통합교단 총회, '코로나19 영향도 조사' (교단 소속 전국 담임목사 1,135명, 온라인조사, 2020.05.28~06.01)

10대의 미디어 이용, 벌써 동영상으로 넘어감

[그림] 플랫폼 유형에 따른 연령대별 뉴스 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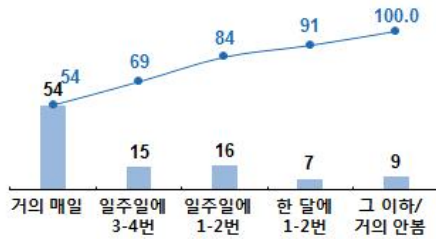


*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Media Issue, 6권 1호', 2020.02.26. (한국언론진흥재단, '2019 언론 수용자 조사, 5,040명', '2019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2,36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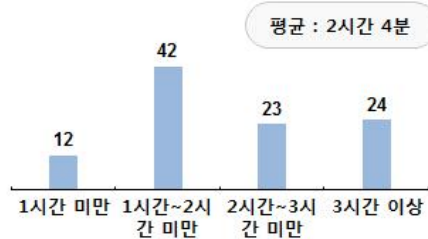
대한민국은 “유튜브 공화국!”

- 전국민의 절반이상이 매일 유튜브 이용!
- 일주일 3번 이상 사용자 기준 일평균 2시간 4분 이용

[그림] 유튜브 이용 빈도(일반국민)



[그림] 유튜브 하루 평균 이용 시간 (일주일 3-4번 이상 이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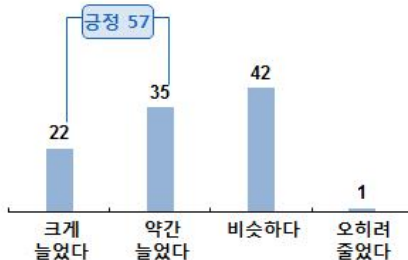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예정합동교단 코로나 19의 종교 영향도 인식조사와 뉴-노멀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미래사회/종교 인식 및 유튜브 사용 실태조사, 2020.11.03.(한국 만19세 이상 일반국민 1000명 온라인조사, 2020081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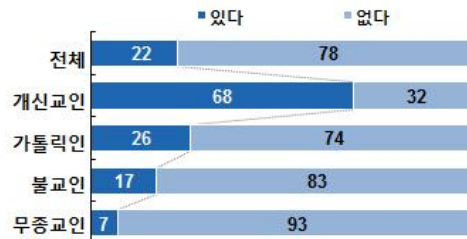
코로나19 이전 대비 유튜브 이용 “늘었다” 57%

- 개신교인이 타종교인보다 압도적으로 유튜브 이용률 높음

[그림] 코로나19 이전 대비 유튜브 이용 시간 변화(월 1-2번 이상 이용자) (%)



[그림] 올해 들어 유튜브 중 기독교 콘텐츠 접촉도 (월 1회 이상 이용자, 종교인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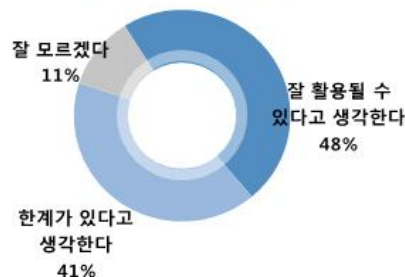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예정합동교단 코로나 19의 종교 영향도 인식조사와 뉴-노멀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미래사회/종교 인식 및 유튜브 사용 실태조사, 2020.11.03.(한국 만19세 이상 일반국민 1000명 온라인조사, 20200813-20)

유튜브, 언컨택트 시대의 “최대의 선교지”

- 전도나 포교의 도구로 유튜브 활용, “잘 활용될 수 있다” 48%
- 최대의 선교지로서 유튜브 콘텐츠 개발 필요(Killer Contents)

[그림] 전도나 포교의 도구로 유튜브의 활용 가능성(종교인)



*자료 출처 : 예정합동교단 코로나 19의 종교 영향도 인식조사와 뉴-노멀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미래사회/종교 인식 및 유튜브 사용 실태조사, 2020.11.03.(한국 만19세 이상 일반국민 1000명 온라인조사, 20200813-20)

1. 한국 교회 리더십 연령의 문제

- 언택트 문화에 대응할 수 있는 리더십 필요 : 리더십의 연령 요인이 중요해 짐
- 교회리더십과 국가리더십간의 평균 연령 격차가 8살 차이가 남
→ 교회 의사 결정 구조 안에 젊은 층 의견 반영 필요

[그림] 국가 vs 교회 리더십 연령 비교 (%)



• 자료 출처 : 시사저널, '결반 이상이 초선...21대 국회 젊어졌다', 2020.04.17.
** 자료 출처 : 한국기독교총회 '총회 총대 4명 중 3명은 60세 이상', 2019.07.17.

코로나19가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을 앞당긴다! 그런데 그 전환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이다!

[그림] 코로나19가 디지털 시대 전환을 앞당길 것이다



[그림] 디지털 시대 전환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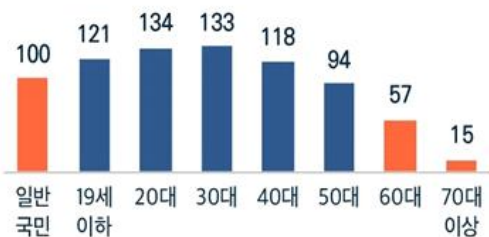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포스트 코로나 - 코로나19와 비대면, 디지털사회 전환', 2020.06.03.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웹 조사, 2020.05.9-10)

2. 디지털 정보격차 (연령간 격차 심각한 수준)

- 향후 비대면 문화 가속화로 인해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은 사회경제적 활동에서 점점 소외됨
- 대부분의 국민(83%)이 향후 디지털 정보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함
- ☞ **교회 리더십 그룹의 디지털 소외계층화에 대응책 마련 시급**

[표] 연령별 디지털기기 사용 역량 수준 (%)



• 출처 : 과기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2020.03.05
(만7세 이상 일반국민 15,000명, 대면면접, 2019. 09.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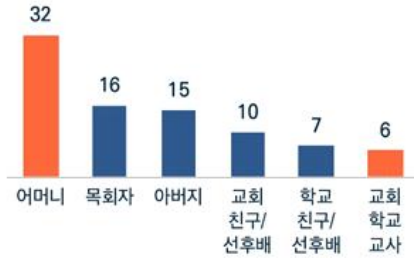
[표] 1년간 디지털 서비스별 이용률 (%)

연령	모바일 쇼핑	모바일 뱅킹	음식 배달앱
20대	76	83	75
30대	74	88	67
40대	58	81	50
50대	30	58	28
60대 이상	8	18	10

• 출처 : 한국갤럽, 2019.7~2020.2. 전국 만13세 이상 5,101명, 대면면접.

3. 다음세대 전략 : 어머니의 교사화 - 중고생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자, 1위 어머니'

[그림]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상위 6위) (%)



[그림] 신앙 영향자(부모 종교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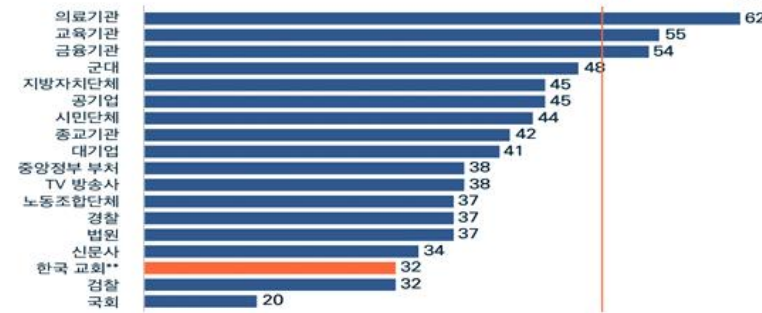
순위	부모 모두 개신교인	부모 모두 비개신교인
1위	어머니 37%	학교 친구/선배 26%
2위	아버지 23%	교회 목사님/전도사님 24%
3위	교회 목사님/전도사님 13%	교회 친구/선배 22%
4위	교회 친구/선배 8%	교회 학교 선생님 11%

*자료 출처: 한국교회탐구센터 '기독교인 중고생의 신앙의식조사', 201911. (개신교 중고등학생 500명 온라인조사, 2019-10)

4. 교회의 공공성 강화

- 코로나시대 한국 교회 당면 과제, 사회적 주체로서 대국민 신뢰도 회복

[그림] 집단별 신뢰도 (4점 척도, '매우 신뢰'+약간 신뢰) (%)



*자료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 2020.01.06 (전국 만 19~69세, 성인 남녀 8,000명, 면대면 조사, 2019.9~10)
**기윤실, 한국교회사회적신뢰도조사, 2020.01(전국 19세 이상, 1000명, 전화 조사)

● 코로나 시대, 사회가 원하는 개신교 역할 : 교회의 공공성(사회적 공익추구)/성도의 생활신앙

[그림] 개신교가 신뢰받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 (일반 국민 대상)* (%)



[그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개신교인 대상)** (%)



*자료 출처: 예장합동교단 '코로나 19의 종교 영향도 인식조사와 뉴-노멀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미래사회 미래종교 인식 및 유튜브 사용 실태조사 결과, 2020.11.08(전국 만19세 이상 일반국민 1000명 온라인조사, 2020.08.13-20)

**자료 출처: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국기독교연표포럼 '코로나19로 인한 한국 교회 영향도 조사(개신교인 대상)', 2020.04.09. (전국 만19세 이상 일반 국민,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04.02~6)

【 종합토론 】

【 참고자료 】

2020 문화선교트렌드: 한국 사회문화 변동과 한국교회의 과제

전문 www.cricum.com/53/?idx=191

문화선교연구원·목회사회학연구소·목회데이터연구소

2020 한국 사회문화 전망과 교회의 과제

백광훈 문화선교연구원장

초갈등 사회 속에서 교회의 역할
'성장형 인간'의 성장과 사회 가치의 변화
공정성 담론의 부상과 교회의 공공성
그 외 주목할 만한 트렌드 - 유튜브, 환경 문제

2020 한국 교계 및 목회적 전망과 과제

조성돈 목회사회학연구소장·실천신대 교수

중형교회 서바이벌
분노사회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
목회자 세금납부 이후

2020 한국 청년문화 및 기독교문화의 전망과 과제

김지혜 문화선교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을 넘는 사람들
신앙 공동체, '혼자 사회'를 만나다
뉴미디어 시대, 기독교문화 꽃필 무렵

통계로 미리 보는 2020

지용근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인구 절벽
낮은 사회적 신뢰도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
1인가구 30%시대
한국인 행복도, '돈'에 과도하게 영향받고 있다
소득 양극화
2020년, 모바일 미디어 시대 원년
위기의 크리스천 대학생
크리스천 4명 중 1명 교회 안 나감



문화선교연구원·목회사회학연구소·목회데이터연구소 공동주최 문화포럼

<2021 문화선교트렌드: 한국 사회문화 변동과 한국교회의 과제>

발행일 2021.01.07.

발행처 문화선교연구원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27(대신동), B1. Tel. 02-743-2535 www.cricum.com

이 자료집의 내용은 문화선교연구원·목회사회학연구소·목회데이터연구소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 또는 복제하실 수 없습니다.